

# ‘내집연금 3종 세트’ 인기...가입 상담 2배↑

### 저금리 속 재테크 수단 자리매김...올 54건 가입 8~15%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문의 최다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 보름만에 가입문의 건수가 급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로 출시된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광주시사는 3종 세트와 관련한 하루 평균 가입신청 상담건수가 출시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건에 이르고 있다며 향후 가입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 지급 한도의 70% 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일시 인출한 금액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을 가입할 것을 사전예약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연금 전환 때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 가량 월 연금액을 더 주는 것이 특징이다. 70세, 주택가격 1억 3000만원인 경우 일반형의 월 연금액은 42만원이지만,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사 관계자는 “이번 출시된 3종 세트 중 가장 문의가 많은 상품이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며 “저금리 속 마땅한 투자를

찾지 못한 노인세대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보이면서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 후 광주·전남지역 가입자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798건에 달한다. 2014년 130건, 지난해 156건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에만 54건을 기록했다.

김영환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후 가입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입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저금리시대 속 주택연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만큼 고객 맞춤 상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0.10 (-2.40)
- ↑ 금리 (국고채 3년) 1.42% (+0.01)
- ↑ 코스닥 703.94 (+3.71)
- ↓ 환율 (USD) 1167.60원 (-5.00)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오전 서구 세미래체협관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대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 광주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설명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11일 오전 서구 세미래체협관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203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은 성실 신고 사전안내 내용과 홈택스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세무대리인 수입동의 절차 간소화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수월해 졌다는 평가다.

광주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전북지역 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순회 설명회를

가졌으며 오는 13일은 전주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별도 사이트 이동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4월 고용률 광주 57.8%·전남 62%

### 비임금·임시근로자 전년보다 증가

지난 4월 광주지역 고용률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남지역 고용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에는 비임금근로자나 임시근로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 취약한 고용 구조를 드러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중 광주지역 고용률은 57.8%, 전남은 62.0%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동일했으며 취업자는 73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13.4%(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4%(8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0.7%(2000명)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4.5%), 광공업(-4.1%), 농림어업(-11.4%)은 감소했다.

취업자 중에는 비임금근로자가 19만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00명(2.3%)이 증가했으며 임금근로자는 54만

명으로 1000명(-0.1%)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에도 상용근로자는 36만3000명으로 동일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14만2000명으로 1000명(0.9%) 증가했다.

광주지역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수도 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4월 중 전남지역 고용률은 62.0%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4%) 증가했다. 이 중 비임금근로자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1만명·2.6%)이 컸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7만 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0.7%(1000명) 증가했다.

전남지역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현대기아차, 멕시코 4월 7086대...시장 점유율 6%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멕시코 시장에서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4월 현지 시장에서 4033대, 현대차는 3053대를 각각 팔았다.

양사의 판매 실적(총 7천86대)은 현대차가 멕시코에 진출한 2014년 5월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종전 기록은 올해 3월의 6128대였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해 7월 현대차에 이어 멕시코 시장에 뛰어들어 이후 처음으로 월간 4000대 판매를 넘어섰다. 업체별 판매 순위도 전월보다 한계 단 오른 8위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스포티지와 K3를 주력 차종으로 판매하고 있다.

110, 아반떼, 쏘나타, 투싼 등을 앞세운 현대차는 지난달 처음으로 3천대 판매를 돌파하며 업체별 순위 10위를 유지했다.

4월 시장점유율은 기아차가 3.4%, 현대차가 2.6%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기아차가 멕시코에서 시장점유율 6.0%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가 이달부터 멕시코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 현지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주 몬테레이시에 들어선 기아차 공장은 이달 중순부터 K3 등의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스포츠웨어의 모든 것...광주신세계 12~18일 스포츠 페어

여름을 앞두고 야외 활동이 덩달아 급증하면서 스포츠 브랜드의 판매도 늘고 있다. 3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익사이팅 스포츠 페어'는 편리함과 실용성, 패셔너블한 스타일까지 갖춘 스포츠웨어와 트렌디한 러닝화 등의 스포츠 캐주얼 슈즈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12일~18일 '익사이팅 스포츠 페어'를 연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프로스펙스, 닥터마틴, 아디다스, 푸마, 컨버스 등의 브랜드에서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데이 세일을 진행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기업 3곳중 1곳 1분기 실적 목표 미달

전경련 600대 기업 조사...44.6% “내년 이후 경제 회복”

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1분기에 경영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투자·경영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224개사 중 32.1%는 1분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27.6%는 올해 연간 실적도 연초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4.6%가 2018년 이후로 예상했다. 2018년 이후에도 회복이 어렵다고 보는 기업은 17.9%였다. 기업들은 또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감세 등 세제지원(29.4%),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27.2%), 투자 관련 규제 완화(23.1%) 등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부양책으로 추경 편성과 두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조치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영상 내부적 애로로는 매출감소(58.8%), 인재확보 및 육성(15.2%), 핵심기술 역량 미비(14.7%)를 지적했고 외부환경상 어려움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32.6%), 국제금융시장 및 환율 불확실성(24.4%)을 들었다. 기업 중 35.2%는 전년 대비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반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29.7%였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어디서,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	<b>여</b>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형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목,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 C 15분 / 문평, 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H. 010-3119-6952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